KOICA
한국국제협력단

Together KOICA

2021 vol.4

KOICA
한국국제협력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Together KOICA

2021
vol.4

사람 평화 번영 환경
코이카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KOICA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위해 1991년 설립된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 기관입니다. 코이카는 전 세계 44개 사무소를 기반으로 보건,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별 프로그램(프로젝트·개발 컨설팅), 글로벌 프로그램(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 인재 양성사업·글로벌 연수·국제기구협력·민관협력사업·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인도적 지원(재난복구 지원·긴급구호), 국제질병퇴치기금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NGO, 기업, 학계, 시민 등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범국민 참여 개발협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이카가 추진하는 개발협력사업은 지구촌 빈곤퇴치와 인권·환경·질병 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글로벌 인재 양성과 우리 기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개발협력,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 기관
코이카가 이루어나가겠습니다.

Together
KOICA
2021 vol.4

<Together KOICA>는 코이카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소식지입니다. 글로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코이카가 전하는 전 세계의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Together KOICA>는 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으로 연결됩니다.

발행인 손혁상
등록일자 1994년 12월 5일
발간등록번호 홍보 2021-01-014

발행일 2021년 2월 18일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전화 031-740-0260
팩스 031-740-0655
홈페이지 www.koica.go.kr

기획·편집 한국국제협력단 홍보실
제작·인쇄 (주)성우애드컴

코이카 뉴스레터 <Together KOICA>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임의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는 대한민국의 대외 무상원조를 전담하는 외교부 산하 정부 출연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 간 우호협력 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합니다.



14



26



48

KOICA Live

06 우즈벡과 코이카의 오랜 협력, 알찬 결실을 거두다
우즈베키스탄 직업훈련교육 역량 강화사업

08 라오스 댐 붕괴 피해 지역을 더 나은 삶의 터전으로
라오스 아타프주 기후변화 대응
회복력 및 자립역량 강화사업

12 화상회의와 온라인 연수, 비대면 컨퍼런스까지
나이지리아의 ICT 혁명은 진행 중

14 청렴 튀니지를 위한 파이널 터치(final touch)
코이카, 튀니지 국민신문고를 업그레이드하다

16 비폭력의 씨앗, 언택트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싹틔웁니다
아시아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교육자 역량 강화사업

18 코이카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아름다운 성장
아름다운가게

22 해외 코로나19 대응 병원에 태극 마크가 있다?
코로나19 대응 병원으로 지정된, 코이카가 지원한
해외 병원

KOICA People

26 당신이 우즈베키스탄에 있음을 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코이카 우즈베키스탄 송영일 글로벌협력의사

28 “이제 베트남 ICT 교육을 하러 갑니다”
ICT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는 두 사람의 정체는?
응우옌시틴(Nguyen Si Thin) & 짠반자이(Tran Van Dai)

30 하늘길 대신 랜선으로 찾아갑니다
코이카 원격봉사활동

32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 커다란 모자이크 그림에서
나에게 주어진 한 조각을 완성하는 것
WFP 르완다사무소 최성희 매니저

36 아이에게는 우유 수염을,
어른에게는 넉넉한 저녁 식사를
밀크포라오(Milk for Lao) 이재원 대표

38 인도네시아의 철도 역량을 꽃피우기 위한 씨앗이 콕콕
2019 철도 인프라 전문가 양성 연수생,
인도네시아 철도 폴리테크닉
와휴 탐토모 아디(Wahyu Tamtomo Adi) 씨

40 당신의 이야기로 세상과 소통하세요
코이카 코디네이터 출신 ‘어나더더블유’ 정용희 대표

42 코이카 구내식당을 책임집니다
코이카 운영지원실 박영주 영양사

44 다자협력인도지원실
글로벌 협력, 지원, 구호의 모든 것을 담다

48 글로벌안전센터
전 세계에 포진한 코이카 파견인력의
안전을 책임지다

52 각국의 전래동화를 통해 만나는
코이카 해외봉사단원과 이주여성의 희망 메시지
‘엄마나라 동화’

KOICA Lounge

54 개발협력에 ‘진심’인 전문가가
추천하는 도서 4

56 Girls Can Do Anything!
세상을 바꾼 여성 인권 영화



우즈벡과 코이카의 오랜 협력, 알찬 결실을 거두다

우즈베키스탄 직업훈련교육 역량 강화사업

'10년 지기'라는 말만으로도 느껴지는 끈끈함이 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관계를 튼튼하게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다.
그리고 여기, 10여 년 이상 코이카와 협력하며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힘쓴 곳이 있다.
바로 우즈베키스탄이다.

글 남지연 **사진** 코이카 우즈베키스탄사무소

우즈베키스탄 인재를 양성하는 곳

코이카는 우즈베키스탄과 10여 년 이상 협력하며 우즈베키스탄 전역에 직업훈련원을 설립하고 있다. 직업훈련원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사회 발전 및 현대화를 지원하며 직업기술교육 및 고등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IT 교육과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교육 정보화를 통해 미래 산업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2012년 7월 타슈켄트 직업훈련원 개원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노동부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2016년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 2018년 샤흐리삽즈 직업훈련원을 연달아 개원한 코이카는 현재 2021년 개원을 목표로 페르가나 직업훈련원을 건립 중이며, 우르겐치 직업훈련원 역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건립 및 직업 훈련 제도 역량 공고화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직업훈련원은 학생들에게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갖추게 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산업체에는 고급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최종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꼬리를 무는 성과를 내다,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

특히 그중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은 코이카 국별협력사업 종료 이후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계명문화대학교와 협력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직업훈련원 건립 후 해당 사업을 대학 파트너와 연계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더불어 교육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우즈베키스탄의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은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자동차 정비, IT, 전기, 용접 등 총 4개 공과에 더해 추가적으로 컴퓨터디자인과 기계CNC 2개 공과를 신규 설립했으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마르칸트 인큐베이팅 센터(SSIC)를 설립해 현재 9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입주 업체는 1년간의 입주 기간 동안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SSIC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창업 자문, 워크숍 등을 통해 창업 전문가에게 스타트업 역량 강화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에 더해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은 WFK 봉사단 사업과 연계해 기계, 전자,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등 4개 분야에 봉사단원을 파견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기도 하다.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은 매년 총 300명 내외의 인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입소 후 이론과 실습으로 이루어진 총 8개월간의 교육과정을 거친다.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1,94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그중 약 95%인 1,287명의 학생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매우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이처럼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은 코이카 내 다양한 사업 유형(국별협력, 민관협력, WFK 봉사단 파견, 연수 등)이 접목·연계된 '코이카 종합형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기에 매우 성공적인 직업훈련원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앞으로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이 지역 내 대학, 기업, 지방정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타국으로의 확산 및 전파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전역에 직업훈련원이 확산되고, 이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는 바,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 1월, 국제기능올림픽위원회에 83번째로 정회원에 가입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이루어냈다. 앞으로도 코이카는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비유인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유효하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 협력하며 꾸준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코이카와 우즈베키스탄. 이들의 협력은 상생과 번영이라는, 어찌 보면 너무나 추상적이고도 거창해 보일 수 있는 이 표현을 몹시 잘 보여주는 멋진 모델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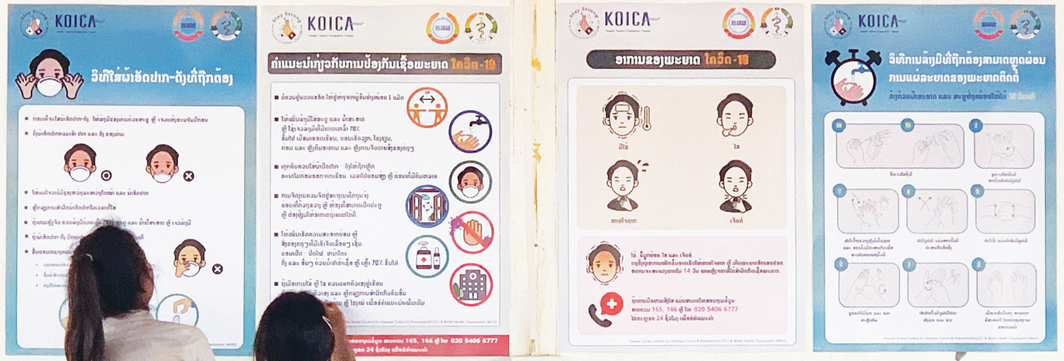


라오스 댐 붕괴 피해 지역을
더 나은 삶의 터전으로

라오스 아타프주 기후변화 대응 회복력 및 자립역량 강화사업

2018년 라오스 아타프주(Attapeu Province)에 위치한 세피안-세남노이 보조댐 붕괴 사고로 강 하류 마을에 6,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코이카는 재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이 코로나19 방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생계 지원에 이어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나섰다.

글 코이카 라오스사무소 고권혁, 한상희
사진 코이카 라오스사무소 김혜미, 싱캄 젠



라오스 아타프 사업의 시작점, 삶의 대응력에 대한 고민

2018년 7월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보조댐 유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순차적 대응이 어느덧 중반부를 지나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 코이카는 파견된 긴급구호팀의 의료 및 물자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효과적일 뿐 아니라 신속히 지원하고자 힘을 쏟았으며, 2019년에는 긴급예산을 편성해 보건, 직업훈련, 재난관리, 교육, 농업, 아동보호 등 통합 지원을 통한 피해 지역 주민의 일상 복귀를 응원했다. 또 주재국 수도와 현장에 각각 별도의 사업 수행 사무소(Project Implementation Unit, PIU)를 설치해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 상시 협의를 거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뤄나가고 있다.

코이카는 사회·경제적 손실로 삶의 면역력이 약해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단순히 피해 이전 상태로 회귀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민하며 '라오스 아타프주 기후변화 대응 회복력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프로그램(2019~2023)'을 진행해나가고 있다. 이는 개발이 수혜자의 직접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위기 상황에 대한 복원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인도주의', 개발 관계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의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Triple Nexus와 뜻을 함께한다.

이에 코이카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필두로 아타프주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을 모색해나가고자 한다.

라오스 아타프 주민에 코로나19 안전망 지원

코로나19 대응 활동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라오스 아타프주 기후변화 대응 회복력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프로그램'과 연계해 단기적으로 의료 지원이 부족한 사남사이군에 코로나19 예방물품 지원을,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코로나19 유행 상태 지속에 따른 2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 취지로 이뤄졌다.

라오스는 2020년 6월 10일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며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으나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과 접경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큰 나라다. 또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약 9,000건 수준인 점 등을 미뤄볼 때 감염병 대응 역량도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열악한 감염병 관리 가운데 코이카가 라오스 내 취약계층 중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임시거주지 주민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본 활동의 의의가 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상생의 개발협력을 이루겠다는 코이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코이카는 라오스 내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임시거주지 주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아타프주 전체 감염병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물품 지원부터 예방교육까지 지속 가능성 추구

코이카는 지난 2020년 6월 29일(현지 시간)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 사남사이 군청에서 '코로나19 대응물품 기증식'을 개최하고, 댐 붕괴로 피해를 입은 재난 취약계층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대응 상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아타프주 이재민 1,000여 가구에 마스크, 체온계, 비누 등 코로나19 예방물품을 에코 백에 담아 전달했다. 또 아타프주 주립병원과 군립병원 4곳, 보건소 32곳에도 마스크, 소독용 알코올, 손 세정제, 체온계 등 지역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방역물품도 지원했다.

물품 지원과 더불어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증상, 전파 경로, 개인 예방수칙 등의 기본적인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소개하는 내용의 마을 방송을 내보내고,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해 임시거주지, 학교, 병원 등 마을 공공시설에 각각 배포했다.

현지 보건국과 협력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실시해 주 보건국에서 유증상자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했고, 주 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통해 코이카는 단순한 물품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공무원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예방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을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 코이카 활동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보건부를 중심으로 아타프주 정부와 협력해 공동 계획을 수립했으며,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재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있다. 라오스 역시 태풍,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로 재난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라오스 같은 개발도상국은 재난에 대한 부족한 대응 역량으로 큰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 이에 코이카는 라오스 아타프주 댐 사고 및 홍수로 발생한 피해를 단기적으로는 복구 및 조기 재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Build Back Better 원칙에 입각해 향후 기후변화와 관련한 라오스 정부 및 주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재난 이전보다 더 나은 환경과 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보건, 직업훈련, 재난관리, 농업, 아동보호 등 5개 분야 통합적 재건 복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코이카는 2019년 사업 착수 이래 다양한 분야별 활동을 통해 아타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보건 분야는 재난에 대비한 응급외상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8명의 주립병원 의료진이 훈련을 마쳤다. 아타프 지역은 대다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재난으로 농토를 잃으면 생계 유지가 어렵다. 이에 생계에 도움이 되는 기술교육과 양어 및 양계 교육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생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장기 목적에서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임시거주지 인근 학교에서 재난관리 교육을 실시했으며, 나아가 재난관리법 전파 회의 및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정 워크숍을 개최했다. 향후 2023년까지 신규 보건소 건립, 농업 치수시설 설치, 재난관리법 시행령 책자 발간 등 분야별 굵직한 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앞으로도 코이카는 아타프주 통합 재난 복구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성과 달성을 위해 아타프 주민의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뤄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코로나19 대응 활동이 코로나19로 지연된 사업 활동에 추진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 대응 활동 마을 주민(수혜자) 인터뷰



동박 마을 이장, 솜찬

"코이카의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통해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대해 새롭게 배운 것이 많습니다. 코이카가 우리 지역사회에 코로나19 예방물품을 지원해주고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려줘 매우 감사합니다."



타마요트 마을 이장, 시타손

"코이카의 활동을 통해 코로나19의 주요 증상, 마스크 착용법,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등 실제적인 대응 방침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저는 일할 수도 없고, 이동도 자유롭지 못해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이카의 지원을 통해 저와 지역 주민들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힘을 얻었습니다."



타마요트 마을 간호사, 폭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해 자세히 교육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코이카 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기뻤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지원된 예방물품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화상회의와 온라인 연수,
비대면 컨퍼런스까지

나이지리아의 ICT 혁명은 진행 중

'아프리카 대륙의 거인(The Giant of Africa)'. 나이지리아에 붙은 별명이다. 2010년 초, 미국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1세기 두 번째 10년을 이끌 포스트 브릭스(BRICs)로 6개 신흥 국가를 지목했는데, 그중 하나가 나이지리아였다. 인구증가율이 높아 급속한 경제 규모 성장이 예측되는 데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천연자원 매장량이 풍부해 성장잠재력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기 때문이었다.

글 이현수
사진 코이카 나이지리아사무소



코로나19에도 멈추지 않는다

나이지리아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빈부격차, 납치와 테러 등 불안한 치안, 부정부패, 비효율적 행정, 인프라 부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를 타개하고 경제를 다각화하며 교육, 보건 등 핵심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이 정보통신기술(ICT)이었다. ICT 분야는 수익과 고용 면에서 석유나 가스 산업만큼이나 잠재력이 높고, 유럽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도 효과적이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ICT 부문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시작해 GDP 통신 부문이 2012년 7.7%에서 2020년 1분기 14.4%로 급속히 성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나이지리아 정부는 2019년 5월에 '교육 분야 ICT 정책'을, 2019년 11월에는 '국가 디지털 경제 정책 및 전략'을 발표하며 디지털 경제를 바탕으로 국력을 강화하는 청사진을 그렸다. 이를 돕기 위해 코이카는 전



자정부 1차 사업으로 나이지리아 연방 공무원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교육시설과 강사 인력을 육성하는 등 기술 활용 역량 강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2020년 초, 이 같은 성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곤경에 처했다. 나이지리아의 의료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병상 수가 인구 1,000명당 0.8개밖에 안 되는 보건 시스템으로 인한 감염 확산은 국민 건강은 물론 그간 이룬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

위기의 순간, 코이카는 나이지리아의 비대면 사업 역량을 강화해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왔다. 화상회의 장비를 구비한 회의실을 마련해 온라인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배려했다. 현황 보고 및 관련 회의를 비대면으로 신속히 이행한 덕분에 나이지리아는 사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다.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는 방법

한편, 지난해 6월 나이지리아 연방통신디지털경제부가 세계은행과 협력해 개최한 비대면 G2C 컨퍼런스에는 장우찬 코이카 나이지리아 사무소장이 참여해 전자정부사업을 소개했고, 이를 바탕으로 ICT 정책과 G2C 서비스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토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온라인으로 '디지털 거버넌스 기반환경 조성사업' 기획조사와 '초·중등 공립학교 멀티미디어 교육 환경 및 역량 강화 사업' 기획조사를 실시해 나이지리아 정부 부처와 한국 기획조사 전문가가 함께 실시간으로 회의를 진행해 사업을 구체화하며 향후 주 정부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는 나이지리아 사무소의 비대면 사업 추진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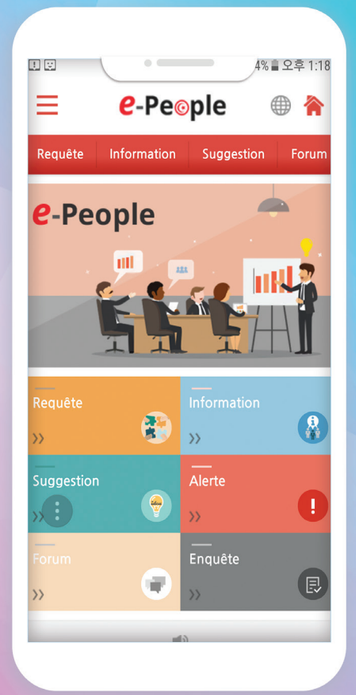
이후 비대면 사업 추진에 자신을 얻은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후 주요 기관 필수 인력을 위한 연수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는 코이카 나이지리아 사무소에서 시행한 최초의 온라인 연수이기도 했다. 전력 및 에너지 분야 역량 강화 연수(전력부 산하 송전공단(TCN) 15명 연수생 대상, 9월 7일~11일), 뒤이어 지능형 교통체계를 활용한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연수(교통부 및 수원총괄기관 10명 연수생 대상, 9월 14~25일) 및 치안역량 강화 연수(경찰청 15명 연수생 대상, 10월 5일~16일)를 성공적으로 시행했으며 구글 클래스룸, 유튜브, 향후 현업 적용 계획인 '액션플랜' 등을 활용해 대면 수업 못지않은 열의를 이어갔다. 코이카는 이 과정에서 비대면 수업 체계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 효율적인 원격교육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동창회 웨비나(Webinar, web에 seminar를 더한 신조어) 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 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은 1991년 설립 이후 지속된 개발도상국 지원 활동으로,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동창회를 열어 지식 공유 정신을 이어가는 인적자원개발(HRD) 사업이다. 코이카 나이지리아사무소와 연수생 동창회는 8월 18일부터 이틀간 웹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약 140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연방 교육부, 통신부, 수도 교육청, USAID(미국 국제개발처), UNICEF, 스타트업 등의 관계자가 등장해 나이지리아 내 원격교육 현황, 사업 추진 결과 등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했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지구촌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에서 코이카는 나이지리아 정부를 도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고, 실시간 소통을 위한 장비를 개선해 향후 해당 사업이 대안적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단한 기틀을 마련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코이카 직원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청렴 튀니지를 위한
파이널 터치(final touch)

코이카, 튀니지 국민신문고를 업그레이드하다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루트비히 미스 반데어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는 "신은 디테일에 있다(God is in the details)"라고 말했다. 꼼꼼함이 성공 비결이라는 뜻이다. 사소한 결점을 챙기고 보완하는 뒷마무리가 이어져야 사업의 성공에 완벽함을 더할 수 있다. 코이카(KOICA)는 2018년 개통한 튀니지 국민신문고를 최근 성공적으로 사후 보완했다. 체계적인 분석과 진단 및 개선으로 튀니지의 투명한 정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코이카의 노력이 어떠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자.

글 이현수 **사진** 코이카 튀니지사무소

청렴한 정부를 위한 선택, 코이카

과거 튀니지는 부패로 인한 상처가 컸다. 벤 알리 대통령 때문이었다. 그는 집권 초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중산층의 지지를 얻기도 했으나 점차 초심을 잃었다. 물가 급등, 높은 실업률을 불러온 정책 실패에 더해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고 사회를 통제하며 점점 기울어진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에 나가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쳤고, 2011년 재스민 혁명으로 세상을 바꿨다. 독재정권을 끌어내린 시민들의 제1요구 사항은 당연하게도 투명한 정부, 즉 '청렴'이었다.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던 튀니지의 선택은 한국이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미 국가 대표 브랜드다.[1] 완전한 부패 척결을 바라는 튀니지는 코이카의 도움을 얻어 2013년 전자조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데 이어 2015년부터 2018년에 걸친 노력 끝에 튀니지 국민신문고(국민 참여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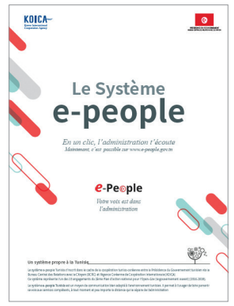
체계적 보완과 개선으로 이룬 시스템 고도화

이는 놀라운 성과였지만, 도입 이후 다소의 불편함도 발견되었다. 통계 확인의 직관성 부족, 이송 메뉴의 부재, 회원가입의 복잡성 등이 그것이다. 이에 튀니지는 사후관리를 요청했고, 코이카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 튀니지 국민신문고를 체계적으로 보완했다.

먼저 코이카가 주목한 부분은 시스템 고도화였다. 우선 통계 시스템을 보완했다. 기존에도 등록·처리·만족도 통계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눈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처리 기간 및 기관별 분류를 기준으로도 체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수정해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이송 메뉴를 추가해 소관 부처 담당이 아닌 질의가 들어왔을 때 수기로 이를 다뤄야 했던 불편을 없앴다.

시스템을 개선하더라도 공무원 등의 사용자가 이에 대해 숙지하고 있지 않다면 무용지물이다. 코이카는 사용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꼼꼼히 챙겼다. 국민신문고 운영 관리 교육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총 46명이 참여했다.

코이카의 보다 나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은 사용자에 국한되지 않았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힘든 시민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접수할 때 도움이 되도록 대화형 단말기, 접수 처리용 스캐너, 스크린 및 시스템 스위치도 튀니지에 지원했다. 또 더 많은 사람이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도록 연간 교육 및 홍보 계획을 수립, 실천하기도 했다.



빠르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신뢰를 높이다

이 같은 노력은 놀라운 결과를 불러왔다. 국민신문고 시스템 접근성이 개선되자 튀니지 국민이 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튀니지 국민신문고에는 무려 1,17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작년 4월 국민신문고에 불과 9건이 올라온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 증가세다. 물론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면도 사용량 증가에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편리해진 시스템에 튀니지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이송 메뉴 추가로 보다 정확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져 국민과 정부 간 신뢰를 높일 수 있었던 점이 이 같은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튀니지는 국민신문고를 적극 활용해 국가와 국민 간 신뢰를 보다 돈독히 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며, 과거 튀니지 재스민 혁명의 계보를 잇는 온라인 소통의 혁명을 지속해나갈 생각이다. 특히 내년에는 튀니지 국민신문고 교육센터에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연간 100회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방지를 위한 온라인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코이카와 함께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능을 개선해 더욱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정부로 발전하고 있는 튀니지의 내일은 앞으로도 환하게 빛날 것이다.



1) 193개 전체 회원국 대상으로 2년마다 평가하는 UN의 전자정부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 2012년, 2014년 세 번 연속 두 개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후 지난 10년 동안 줄곧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았으며, 2020년 역시 온라인 참여 지수 1위, 전자정부 발전지수 2위를 기록하며 민주주의를 견인하는 투명한 온라인 정부 시스템의 존재와 영향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었다.



비폭력의 씨앗, 언택트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싹틔웁니다

아시아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교육자 역량 강화사업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 이제 글로벌 연수가 진화하고 있다. 2020년 6월 코이카는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 캄보디아에 우리의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연수를 진행했다. 온라인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해 효율적인 강의를 진행한 캄보디아 온라인 시범 연수 현장을 따라가보았다.

글 이현수 **사진** 최항석

비대면 시대에 발맞춘 코이카의 발 빠른 변화

"온라인 강의를 들으러 오신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수를 담당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권구순 교수가 반가움을 표시하자, 스크린 건너편에서 연수생들이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다. 이곳은 캄보디아에 우리의 개발협력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비대면 강의 현장. 캄보디아 연수생 21명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연수 시작일, 강의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 정각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인 이들은 고대하던 연수를 드디어 받게 된 것을 반가워하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강의에 집중했다.

2020년 6월, 코이카는 글로벌 온라인 시범연수 '아시아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교육자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했다. 글로벌 연수는 개발도상국의 주요 부처 관계자에게 우리의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해당국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다. 2020년, 코이카는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및 비대면 시대 출범에 대응하기 위해 본 사업을 온라인으로 발 빠르게 전환했다. 그중 시범 국가로 선정된 나라가 캄보디아다.

아시아의 평화를 이끌어갈 국제협력 전문가

평화 관련 인지·기술·태도(knowledge-skill-attitude)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캄보디아의 사회적 니즈는 현재 상당히 높은 상태다. 아시아는 민족, 종교, 사회·경제적, 계층적 불평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곳이 적지 않은데, 캄보디아도 그중 하나다. 과거 내전의 아픔을 겪었고, 그 여파로 지금까지도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쉽지 않은 데다 그로 인한 갈등의 싹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코이카는 2020년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 열린 이번 연수에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MoEYS), 지뢰행동피해자지원처(CMAA)와 관련 민간 단체 등 21명의 전문가를 초청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갈등을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비폭력적인 대화·논의, 글로벌 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다.

연수는 본격적인 강의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코이카는 캄보디아 연수생들을 메신저 단체방에 미리 초대한 뒤 서로 질문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친근감과 소속감, 유대감을 쌓게 했다. 또 코이카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 온라인 세미나에 필요한 컨트리 리포트를 수업 시작일 전에 미리 제출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수업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했다.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당초 생업이 있는 만큼 총 다섯 그룹 21명의 연수생 전원이 과제를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연수생 전원이 과제를 제출한 데다 내용 역시 충실했다. 이번 온라인 연수에 대한 연수생들의 뜨거운 열의가 반영된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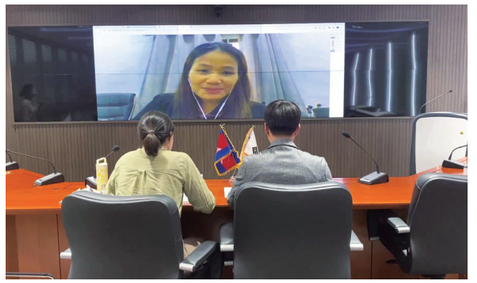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는 연수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 같은 열기는 수업 마지막 날인 6월 24일까지 지속되었다. 연수생들은 1974년 UNESCO 권고안부터 2015년 인천선언까지의 평화·개발교육의 역사와 이론을 공부하고, 갈등 해결의 구체적 사례를 연구한 뒤 주제별 토론 등으로 갈등 분석 및 활용 방법을 습득하며 갈등관리 지식을 단계별로 단단히 다졌다.

이번 연수를 성공적으로 이끈 권구순 교수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가해야 본인들이 원하는 지식을 충실히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연수생들이 학업 성취도를 스스로 점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 평가 시스템을 준비해 활용했다"라고 말하며 연수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빈틈없는 대비가 이번 연수를 성공적으로 이끈 밑받침이었다고 밝혔다.

CMAA 로스 소팔(Ros Sophal) 씨는 "타국 연수생이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점이 돋보였으며, 덕분에 CMAA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번 연수에 대한 소회를 말했으며, 이번에 공부한 세계시민의식 및 갈등관리를 캄보디아 전역의 25개 CMAA 지사 및 이사회와 공유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다. 또 연수생들은 수업의 일환이었던 '목표를 현실화하는 액션 플랜'에 대해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향후 캄보디아 사회의 갈등관리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코이카는 이번 캄보디아 글로벌 온라인 연수의 성공을 계기로 대상국과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포스트코로나와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연수 패러다임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아시아 평화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갈등을 해소해 민족, 종교,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조율함으로써 평화를 보장하는 버팀목이 되어줄 코이카 온라인 연수. 앞으로도 캄보디아는 물론 아시아 각국의 평화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시민의식을 높여주는 씨앗이 될 전망이다.





코이카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아름다운 성장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가게는 국내사업은 물론 해외사업에도 적극 나서는 사회적기업이다. 일반인에게는 재활용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들이 전하는 선한 영향력은 나라 안팎을 넘나들며 사람들에게 희망의 꽃을 피우고 있다. 현재 코이카와 함께 방글라데시 재난 피해자 자립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아름다운가게를 만났다.

글 이경희
사진 이성원, 아름다운가게 제공



아름다운가게의 국경을 넘나드는 지원사업

아름다운가게는 꽤 오랜 역사를 지닌 사회적기업이다. 참여연대의 알뜰시장으로 시작해 아름다운재단에 소속되어 있다가 완전히 독립해 운영을 시작한 것이 2002년이니 내년이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관록의 기업이다. 전체 직원 수는 약 450명. 크게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으로 나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의 국내사업은 꽤 잘 알려져 있지만 해외사업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

"국내사업은 개인과 단체의 자립을 돕는 '희망나누기' 사업을 메인으로 다양한 테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이나 위탁시설에서 살다 만 18세가 되어 사회에 나오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사업을 10년째 하고 있고, 전국 110개 매장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맞춤형 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해외사업은 우연히 네팔의 한 아이를 돕다가 시작하게 됐는데 이후 베트남, 네팔,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사업을 한 지 어느덧 10년 정도 됐어요. 해외에서는 교육사업, 도서관 짓기, 자립 지원 프로젝트, 농업 프로젝트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문화국 김하나 국장이 아름다운가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아름다운가게가 코이카와 처음 손을 잡은 것은 2015년 현재진행형인 '방글라데시 재난 피해자 자립 지원사업'부터다.

"2013년에 방글라데시 사바 지역에서 8층짜리 의류 공장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크게 주목한 사고였죠. 4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8층으로 불법 증축했는데, 사고 당시 9층으로 추가 증축 공사를 진행하다 지반이 건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거예요. 1,135명이 사망하고 2,50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실종자를 다 발굴하지도 못한 채 사고 현장이 덮였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얽혀 있었기에 국제적으로 큰 화제가 된 이 사고를 방글라데시 정부가 빨리 묻어버리려고 한 겁니다."

이 사고가 더욱 이슈가 된 까닭은 따로 있었다.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던 은행 직원들은 재빨리 대피했지만 의류 공장은 문을 잠가놓은 채 일을 시켰기에 의류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희생된 비인권적인 최악의 인재였기 때문이다.



최악의 인재 피해자들의 역량을 키우고 자립을 지원하다

아름다운가게는 사고가 일어난 직후 긴급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순차적으로 의료적 지원을 한 것은 물론 트라우마 심리 치료, 역량 강화사업 등을 지원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2014년 긴급구호 3차 지원 때 시작한 역량 강화 지원사업이다.

"사바 지역은 방글라데시의 수출 가공공단(EPZ)이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유명한 의류 기업의 현지 공장도 이 근처에 있고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오는 지역이죠. 한마디로 저렴한 인건비로 조성된 전 세계의 의류 공급 지역이에요. 실제로 방글라데시는 2018년 세계 3위 의류 수출국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성 인권 의식과 여성의 사회 진출 비율이 매우 낮은 이 나라에서 여성들이 유일하게 일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섬유·의류 분야입니다."

사회적기업센터 해외파트 이해인 간사는 역량 강화 교육

을 시행한 이유를 두고 “의류 공장에서 일했지만 정작 기술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속칭 ‘시다’라고 하는, 실밥을 뜯고 단추를 다는 등의 단순 노동밖에 하지 못하는 분이 많았어요. 분업화가 너무 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봉틀로 재봉질을 하는 기술이 있는 분도 거의 없었죠. 저희는 이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14년 아름다운가게는 수혜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방 ‘뷰티풀웍스(Beautiful Works)’를 설립했다. 그리고 이듬해 코이카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으며 지금까지 다년도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방글라데시 현지에 저희 NGO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들이 뷰티풀웍스 운영을 전담하고 있고 사고 피해자들은 거기에 고용돼 일하고 있어요. 현재 18명이 재직 중이며, 저희는 코이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코이카 방글라데시 사무소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어요. 뷰티풀웍스에서는 의류와 가방, 액세서리, 마스크 등을 생산하는데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것은 물론 독일과 한국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에서 장인으로 거듭난 그들

아름다운가게에서는 수혜자 개개인의 자립과 함께 공방 자체의 자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공방 사업 초기, 아름다운가게는 뜻밖의 상황에 직면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자립과 수혜자들이 지닌 자립의 개념이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립은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버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자립은 그저 돈을 많이 받는 거였죠. 우리는 서로 생각을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상하 관계에 익숙한 그들이 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방 운영에도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계속 면담하면서 소통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근로자들로부터 ‘공방이 잘되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마인드를 갖게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지금은 공방이 잘돼야 나의 역량도 향상되고 생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현재 뷰티풀웍스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욕을 먹지도 않는 것은 물론 폭력도 없고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두려움도 없으며 억지로 야근을 하거나 돈을 떼이지 않으니 자기 삶에 대한 만족감과 더불어 가족의 행복 지수까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 중에 김하나 국장과 이해인 간사가 뷰티풀웍스에서 만들어 현재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주트 백’을 자랑스럽게 보여줬다.

황마에서 얻은 식물섬유 ‘주트’로 만든 친환경 소재의 이 가방은 2015년 첫선을 보인 이후 매년 새로운 디자인을 출시했고, 2020년에 여섯 번째로 선보이는 가방이다. 아름다운가게 온라인 쇼핑몰 뷰티풀마켓(www.beautifulmarket.org)과 전국의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판매한다. 아름다운가게의 업사이클링 브랜드 에코파티 메아리에서 가방 디자인을 제공하고 뷰티풀웍스 근로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정을 담당해 만든다.

“각 잡기부터 스크린 프린팅까지 까다로운 공정을 뷰티풀웍스 근로자들이 직접 작업해 수출하고 있는 가방이에요. 저희는 근로자들을 고용인(employee) 대신 장인을 뜻하는 ‘아티잔(artisan)’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그들은 내가 이 가방을 온전히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코이카와 함께하는 이 사업은 2021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때문에 계획한 모든 것에 차질이 생긴 것이 사실이지만 방글라데시 현지 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고 독일, 한국으로의 수출 역시 계속할 예정이다. 방글라데시의 섬유·의류 분야 비공식 실업률이 80%나 되는 상황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 직원이 모두 건강하다는 것은 아름다운가게 가족들의 큰 기쁨이다.

인터뷰 막바지, 김하나 국장과 이해인 간사가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름다운가게의 ‘그물코 정신’, 팬데믹을 통해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모두가 통감한 이 시대에 아름다운가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의 ‘연결’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이다.

“아름다운가게는 사실 국제개발협력 전문 NGO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1세대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라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노하우를 협력이 필요한 나라에 전달하고, 우리의 노하우로 협력국 여러분과 꾸준히 함께 걷고 싶은 바람이에요.”

아름다운가게에서 펼치는 선한 영향력이 민들레 홀씨처럼 곳곳으로 퍼져 나가는 세상, 그리고 그 씨앗이 돌고 돌아 다시 우리 품 안에서 만나게 되는 날 아름다운가게가 꾸는 꿈도 이루어질 것이다.

※ 인터뷰 진행 전 발열 체크 및 손 소독을 실시했으며, 사진 촬영을 제외한 인터뷰 전 과정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했습니다.

해외 코로나19 대응 병원에
태극 마크가 있다?

코로나19 대응 병원으로 지정된, 코이카가 지원한 해외 병원

제대로 된 치료시설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이카는 개발협력사업으로 여러 협력국에 현대 의료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코이카가 건립 및 지원한 의료시설이 잇달아 코로나19 거점 대응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코로나19로 어둠에 휩싸인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각국의 코이카 해외사무소에서 전해온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만나보자.

글 남지연 **사진** 코이카



Palestine





팔레스타인 국립약물중독 재활치료센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보건부는 2019년 대한민국 정부가 코이카를 통해 베들레헴에 건립한 '국립약물중독 재활치료센터'를 코로나19 확진 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으로 지정했다. 장기간에 걸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에 의한 트라우마로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지역 내 급증하고 있는 약물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 지어진 국립약물중독 재활치료센터는 코이카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500만 달러를 지원해 건립한 팔레스타인 최초의 공공 약물중독 재활치료센터다. 약물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건립된 곳이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필수적인 집중치료시설(ICU)과 산소 공급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확진자별로 격리 치료가 가능하기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최적의 요건을 갖춘 병원이었던 것이다.

네팔 누와꼿 군립병원

네팔은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예방을 위해 확진자 치료가 가능한 의료시설과 환자 수용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이에 준공을 앞두고 있던 누와꼿 군립병원이 코로나19 대응 병원으로 지정되었다.

네팔 누와꼿 군립병원은 2015년 네팔 대지진으로 붕괴된 네팔 의료보건체계 재건을 위해 코이카가 건립한 병원이다. 2020년 3월 말 개원해 일반 환자를 진료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발생으로 코이카와 네팔 정부가 합의해 임시로 문을 열고 격리 병동을 우선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최근에는 코이카 네팔사무소에서 네팔 보건부에 2만여 명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유전자 증폭(RT-PCR) 방식 진단 키트를 지원했다. 네팔은 현재 감염 의심 환자 대비 진단 키트 부족으로 진단 검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상황인데, 유전자 증폭 방식 진단 키트보다 정확도는 낮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속 진단 키트(RDT)마저 정부 확보 물량의 80% 이상을 소진한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코이카 네팔사무소의 진단 키트 지원은 가뭄 속 단비와도 같았다.

Nepal





한-필 친선병원

Philippines





필리핀 한-필 친선병원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로, 커다란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절실한 상황에서 필리핀 수도 마닐라 남부 카비테주에 위치한 한-필 친선병원이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필 친선병원은 코이카가 2002년 건립한 병원으로, 1999년부터 20년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코이카가 꾸준히 지원해왔다. 여기에 더해 이런 상황을 예측이라도 한 듯 2012년에는 감염병 연구 및 치료를 위한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공중보건센터를 구축하기도 했는데, 공중보건센터 연구 시설에서는 최근 대규모 코로나19 검사를 시작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검체 샘플 보관 및 폐렴 진단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거점 시설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Kenya





케냐 키텐겔라 주립병원

케냐 정부는 각 주에 위치한 종합병원 이상 등급의 병원을 코로나19 대응 병원으로 지정했는데, 그중에는 코이카가 병원 증축과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온 케냐 카지아도 주 키텐겔라 주립병원도 포함되어 있다. 키텐겔라 주립병원은 1996년에 작은 진료소로 처음 개소했지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코이카가 병원 건물 신축과 의료 기자재를 지원하면서 점차 규모를 키웠고, 현재는 종합병원으로 격상되어 코로나19 대응 병원으로까지 지정될 수 있었다. 키텐겔라 산하 카운티 병원의 의학부장에 따르면, 현재 케냐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진단 검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상황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주민들 역시 코로나19 전파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케냐 의료계는 조만간 케냐 내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격리시설을 철저히 통제하고,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페루 도스데마요 국립병원 & 페루 피우라 산타로사 한-페 병원 II

페루의 도스데마요 국립병원은 1875년 지어진 병원으로 설립된 지 10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페루에서 가장 큰 병원이다. 코로나19 대응 병원으로 지정된 이곳은 높은 수준의 의료 인력을 갖추고 있을뿐더러 기계식 인공호흡기, 단층 촬영기 등의 현대적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2010년부터는 중환자 관리를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해 전문화된 진단 및 치료 센터(ICU)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5월, 코이카 페루사무소는 도스데마요 국립병원에 마스크와 방역복, 페이스 실드를 기부하기도 했다.

또 다른 병원인 페루 피우라 산타로사 한-페 병원 II는 피우라시에 있는 유일한 페루 보건부 지정 병원으로, 피우라시에 위치한 작은 보건소를 대표해 코로나19 대응 병원으로 지정되었다. 2020년 3월에는 21명, 4월에는 441명, 5월에는 536명, 6월에는 584명이 입원하는 등 규모는 크지 않지만 확진자 증가에 따라 이곳 역시 수용 및 치료 인원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코이카 페루사무소는 2020년 5월 도스데마요 국립병원과 마찬가지로 이곳 병원에도 마스크와 방역복, 페이스 실드를 기부해 페루 의료진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완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

Peru





Cambo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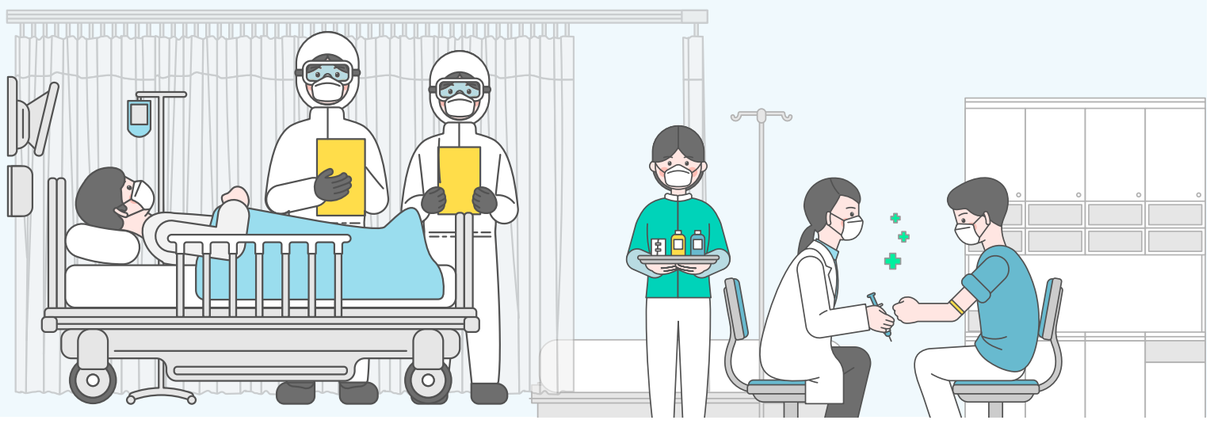


캄보디아 국립소아병원

캄보디아는 팬데믹 초반에 외출 자제, 모든 KTV(노래방)와 영화관 영업 중지, 종교 모임 금지, 단체 운동 금지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제한 조치를 지시하며 초기 대처와 방역에 힘을 쏟은 결과, 코로나19 사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에서 코로나19 대응 병원으로 지정한 국립소아병원은 캄보디아 아동에게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코이카는 2005년부터 2년간 240만 달러를 투입해 아동진료센터를 지원한 바 있다. 이후 아동 중환자 집중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2013부터 5년간 728만 달러를 투입함으로써 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 의료 기자재 및 가구, 의료인력 역량 강화 등을 2차로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캄보디아사무소 역시 팔을 걷어붙이고 캄보디아의 코로나19 극복에 나섰다. 2020년 5월 8일, 국립소아병원과 크메르 소비에트 친선병원에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기증했으며 빈민층을 대상으로 구호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캄보디아에서 글로벌 협력의사로 일하고 있는 서정호 글협의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처럼, 앞으로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간 더 깊은 협력과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라며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시점에 서로의 도움이 가장 큰 힘이 되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당신이 우즈베키스탄에 있음을
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코이카 우즈베키스탄
송영일 글로벌협력의사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압 궁전 접견실에는 과거 우즈베키스탄을 찾아온 고구려 사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1,300여 년 전 그려진 벽화를 통해 우리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이 오랫동안 교류해왔음을 짐작한다. 그리고 수천 년이 흘러 오늘날 두 나라는 'K-의학', '글로벌협력의사'를 매개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

글 이성미 **사진** 송영일 제공



제2의 고향 우즈베키스탄으로의 금의환향

처음에는 에티오피아로 가는 줄 알았다. 2007년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코이카 국제협력의사(현 글로벌협력의사, 이하 글협의) 선발 공고에는 파견지가 에티오피아로 나와 있었다. 그런데 면접 당일 면접관은 "우즈베키스탄으로 갈 수도 있는데, 괜찮겠나?"라고 물었다. 송영일 글협의는 비장하게 대답했다. "달나라로 보내주셔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달나라보다 가까운, 우즈베키스탄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지금 와 생각하니 우즈베키스탄이 저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우즈베키스탄에 있으면서 고생스러운 봉사활동이 아닌 항상 내일이 기다려지는 즐거운 봉사활동을 했고요."

그를 가장 행복하게 한 것은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사랑이었다. '방탄소년단이 부럽지 않은 인기'였다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자신에게 보내주는 사랑은 그가 눈을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을 행복하게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게 했다.

파견 기간 송영일 글협의는 우즈베키스탄 현지 주민을 위해 주 2회 금연·금주·금마(禁痲) 약침 시술, 정기 순회 의료 봉사, 비정기 지방 의료 봉사 등의 활동을 했다. 대민 활동뿐 아니라 한국 한의학계와 우즈베키스탄 의학계 간 학술 교류 추진, 한의학 서적 번역, 한국 한의학 학국학회 창립 등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이러한 공로로 2009년에는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

2010년 귀국 이후 한국에서 보낸 6년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 2015년 말 코이카 글로벌협력의사 모집 공고가 나자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지원했다. 글로벌협력의사 1기로 뽑힌 그는 우즈베키스탄 파견을 지원했고, 2016년 3월 그립던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왔다. 제2의 고향 우즈베키스탄으로의 금의환향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의 K-의학 스타

송영일 글협의가 활동하고 있는 근무지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제2병원 산하 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한의학진료센터다. 우즈베키스탄 내 국립의료기관에 개설된 유일한 한의학 관련 센터다. 이곳에서 송영일 글협의는 환자 진료, 한의학 의료 지식 및 기술 전수를 중심으로 의료 봉사, 한의학 서적 번역 등의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한의학을 전파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교과서 개발입니다. 그동안 저는 우즈베키스탄 의대 교수들과 협업해 한의학 교과서 4종을 발간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교과서에 수록된 기본 침구혈 명칭이 모두 한글과 한국어 발음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태권도의 경기 구령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즈베키스탄 한의학 교육의 기준은 한글과 한국어가 되도록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즈베키스탄에 K-의학을 전파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K-의학 전파에는 한국 드라마도 한몫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대장금>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다. 드라마의 인기는 사람들이 한국과 한국의 한의학을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덕분에 최근 3~4년간 중국 진출이 가속화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안에 중의학을 표방한 의료기관이 개설되고 있지만, 국립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한의학(전통의학) 관련 외국인 의사는 송영일 글협의가 유일하다.

당신이 우즈베키스탄에 있어 다행입니다

오랜 시간 우즈베키스탄에서 글로벌협력의사로 생활하면서 자신의 활동이 주민 건강을 지키고 타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절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자국에 송영일 글협의가 있다는 것을 알라신에게 감사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송 선생은 절대 아프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를 보살펴줘야 하니까요. 당신이 우즈베키스탄에 있어 알라신에게 항상 감사합니다'라고요. 그들의 환한 미소가 제가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치료보다도 값어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까마득한 1,300여 년 전, 사마르칸트에 도착해 타국에서 외로운 밤을 맞이했을 고구려 사신들은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드높아질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어렴풋이 떠올리며 송영일 글협의는 타국 국민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생각한다.

"이제 베트남 ICT 교육을 하러 갑니다"

ICT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는 두 사람의 정체는?

응우옌시틴(Nguyen Si Thin) & 짠반자이(Tran Van Dai)

두 번에 걸친 도약 끝에 베트남 IT 성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베트남 중부 다낭시의 한-베 친선 ICT대학교가 그 주인공이다. 이 대학의 전신은 한-베 친선 IT대학이다. 코이카가 1,000만 달러를 지원해 2007년 설립했다. 이후 베트남 정보통신 분야의 급성장과 IT 인력 부족을 눈여겨본 코이카는 다시 약 1,000만 달러(기자재 340만 달러 포함)를 지원해 본 대학의 개선 및 확장에 나섰다. 2·3년제였던 한-베 친선 IT대학과 인근 다낭대학교 IT학과를 4년제인 한-베 친선 ICT 대학교로 통합했다. 이는 고등교육 인프라와 고급 IT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베트남 내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급 인재 육성과 교직자의 능력 개선이 맞물려 있다는 데 착안한 코이카는 한-베 친선 ICT대학교 박사학위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해 최근까지 총 16명의 우수한 교원을 배출해왔다. 그중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곧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을 만나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 본국으로 돌아가 펼칠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글 이현수 **사진** 이성원



Q 코이카 한-베 친선 ICT 대학교 박사학위 교원 양성 프로그램(이하 교원 양성 프로그램) 과정을 마친 것을 축하합니다. 두 분은 원래 어떤 일을 했나요?

응우옌시틴 강사이자 스타트업 창업자였어요. 2014년에 베트남 다낭대학교에서 컴퓨터과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이커머스 분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디지털 라이브러리(Digital Library), 플라워 모바일(Flower Mobile)이라는 두 개의 스타트업을 지인과 함께 창업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살았죠.

짠반자이 저는 서버 개발자였습니다. C#, MS SQL Server, 인적자원관리, 워크플로우 시스템 개발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그러다가 2011년부터 한-베 친선 IT대학에서 강의하며 교육자로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Q 숭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 혹은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짠반자이 2년 동안 한국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쌓았어요. 그중에서도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서울의 겨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1년 내내 따뜻한 아열대기후여서 눈을 볼 수 없어요. 한국에 공부하러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생애 처음으로 TV가 아닌 실제로 눈을 본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Q 이번 교원 양성 프로그램 과정이 베트남의 IT 기술 증진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응우옌시틴 현재 베트남 IT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물론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한국 ICT 기업도 100개 이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보통신부(2019년)에 의하면 40만 명의 IT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약 25만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이번 박사생 양성은 양질의 교육으로 ICT 전문 인력을 원활히 배출해 베트남 IT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청신호입니다. 물론 베트남 내 한국 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 기대합니다.



Q 포스트코로나 시대입니다. 이에 ICT를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귀국 후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가 무엇인지 들려주세요.

짠반자이 저는 귀국하는 대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면 강의에서는 학생이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수업을 제대로 따라오는지 못 따라오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종종 있죠. 하지만 온라인은 제출·대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도를 명료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강의 노트, 연습 문제 등을 철저히 준비해 비대면 시대 교육에서 앞장서나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딥러닝, 머신러닝, AI 분야를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귀국 후 이 부분을 보강한 더욱 충실한 수업으로 한-베 친선 ICT대학교에서 열정적으로 강의하고자 합니다.

응우옌시틴 저는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원래 커리어인 이커머스 강의를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번 박사과정에서 ITPM(IT Policy Management, IT 정책관리)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를 반영한 강의로 학생들을 올바르게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뷰 진행 전 발열 체크 및 손 소독을 실시했으며, 사진 촬영을 제외한 인터뷰 전 과정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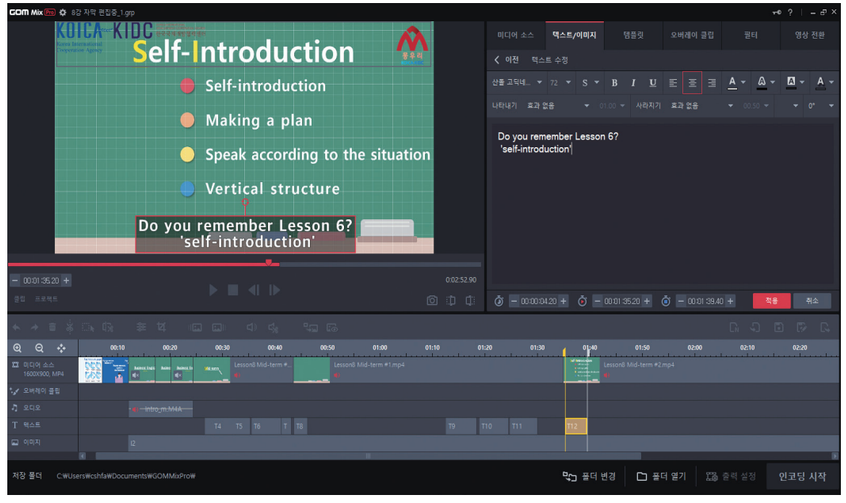
하늘길 대신 랜선으로 찾아갑니다

코이카 원격봉사활동

2020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코이카 글로벌 봉사단원들은 활동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속절없이 다음을 기약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코이카가 새로운 방식의 봉사활동인 원격봉사활동(e-volunteering)을 제안했다. 원격봉사활동은 코로나19 사태에도 협력국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글 이성미 **사진** 봉사단원 제공







원격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원들의 모습

코로나19 시대, 이제는 봉사활동도 비대면입니다

원격봉사활동이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봉사활동을 말한다. 전자 매체(electronic)를 뜻하는 영어 'e'에 자원봉사활동(volunteering)을 결합해 e-volunteering이라고도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봉사활동이 전면 중단되자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수혜국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에티오피아 파견 당시 현지 학교 방문 모습

코이카에서 원격봉사활동 단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영훈·최승헌·최재영·홍우주 단원 등은 즉각 뜻을 모았다. 이 중 최재영·홍우주 단원은 지난해 7월부터 도미니카공화국 프로젝트봉사단으로 해당 국가 청소년들을 만나 리더십 교육, 미성년 임신 방지를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단원들은 도미니카공화국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꿈을 찾을 수 있게 돕고 올바른 성 지식, 여성 인권 등을 가르쳤다. 원격봉사활동으로 전환된 지금은 6명이 한 팀이 되어 현지 학생들을 원격으로 관리하며 교육 활동과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원격봉사활동,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희망이 되다

에티오피아 파견 봉사단원들도 원격봉사활동을 통해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교사 그리고 교육대학교 학생들에게 컴퓨터과학 분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컴퓨터교육은 본래 에티오피아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해왔으나 현지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한국 봉사단원들이 전기 없이 교구를 활용할 수 있는 언플러그드(unplugged) 활동을 제안하면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기가 필요 없는 언플러그드 활동과 원격봉사활동은 얼핏 같은 선상에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봉사단원들은 대안으로 현지에서 활동하는 코이카 직원을 통해 초등학교와 교육대학교에 언플러그드 교재를 배포하고, 에티오피아에서 상대적으로 인터넷 활용이 용이한 교육 주체에게 교재와 관련된 교육 영상을 제공했다.

몽골에 파견되어 영어를 교육하던 최승헌 단원 등도 프로젝트 팀을 이뤄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단원들은 몽골 청소년들의 IT 및 외국어(한국어, 영어) 역량 강화를 위해 컴퓨터교육, 한국어교육, 영어교육, 통·번역, 홍보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최승헌 단원은 오프라인에서는 단원들의 수가 한정되어 소수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했지만, 원격봉사활동으로 전환되면서 단원들이 만든 영어교육 영상이 몽골 셀렝게 지역 모든 사업 대상 학교에 배포되어 더 많은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고영훈 단원은 현지에서 하는 봉사는 단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원격봉사는 각 팀원이 특기를 살려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는다.

밤낮이 바뀌어도 열정의 온도는 변하지 않아요

전례 없는 원격봉사활동을 추진해나가는 데는 물론 장애물도 있다. 밤낮이 바뀐 시차, 열악한 인터넷 환경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원격봉사활동은 단원들의 꿈을, 해외 청소년들의 배울 기회를 이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자신보다 어린 여성들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본 홍우주 단원도 그들의 꿈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에 참여했다.

"10대 미성년의 임신은 교육 기회 상실,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지고 끊임없는 악순환을 야기하죠.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의 올바른 성 인식 개선과 자기 계발 등을 위한 교육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도 봉사단원들은 랜선으로 전 세계 청소년을 만나고 있다.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과 애틋함이 더해져 그들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끈끈하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코이카와 봉사단원의 진심은 변치 않기에 협력국과의 소통은 계속될 것이며, 전 세계 청소년의 성장도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

※ 본 인터뷰는 서면 및 유선으로 진행했습니다.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

커다란 모자이크 그림에서 나에게 주어진 한 조각을 완성하는 것

WFP 르완다사무소 최성희 매니저



최성희 매니저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직원으로 현재 르완다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게 꿈인 이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지만 그가 느끼는 사명감과 책임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 코이카가 지원하는 유엔 자원봉사자로 국제기구와 첫 인연을 맺은 그가 WFP 직원이 되기까지 걸어온 시간을 만나보자.

글 이경희 사진 이성원

차근차근 차곡차곡 쌓아간 꿈을 향한 길

아이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 아이는 이불 속에서 세계 각국에 대한 책을 읽고 책상에 앉아 세계지도를 들여다보았으며, TV에서 글로벌 다큐멘터리를 보며 호기심과 궁금증을 채워갔다.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면서 저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특히 빈곤과 분쟁 문제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최성희 매니저는 성공했다. 어린 시절 품었던 막연한 호기심을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그가 들인 열과 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게 되면 이 과정에서 '행운'이라는 단어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학부에서는 영어를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국제개발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던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한국 학생 중 국제개발을 공부하는 이는 거의 없었어요. 유학 시절에도 저 말고는 본 적이 없을 정도였죠."

최성희 매니저는 대학 휴학 중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 그곳에서 일하며 정말 이 업무가 내 적성에 맞을지,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다행스럽게도 적성에 맞았고, 일도 생활도 잘했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 대학원에서 국제개발을 공부했고, 졸업한 뒤에는 2011년 코이카가 지원하는 WFP 라이베리아사무소의 유엔 자원봉사자(United Nations Volunteers, UNV)에 지원해 현장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

"사실 UNV는 본인과 기관의 시험 무대(trial)라고 할 수 있어요. 본인과 잘 맞고 기관에서도 인정받으면 계속 유엔에 남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예요."

최성희 매니저는 1년 동안 라이베리아 전역에 흩어진 WFP 사업장(WFP가 지원하는 학교 급식 및 영양 지원사업)을 다니면서 모니터링하고 정부와 사업 관리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했는데, 이는 WFP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수혜자'들을 현장에서 늘 만나는 일이었다.

"저는 식량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 WFP에서 제공하는 식량이 얼마나 중요한 생명줄이 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고, 이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3년 세계식량기구 근무 당시 시에라리온 수혜 지역 주민들과 생계지원 사업에 관한 회의를 하는 모습







필요한 것은 뛰어난 소통 능력과 열린 사고

많은 사람이 묻는다. "국제기구에서 일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잘해야 하는가?" 최성희 매니저는 이에 대한 답으로 "국제적이고 다양한 시각"과 "다른 관점과 소통 방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사고"라고 말한다.

"국제기구는 워낙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이 모여 일하는 곳인 만큼 소통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즉 상대를 잘 이해하고 내 의견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성향과 적성에 맞아야 하는데, 국제기구는 일반 직장과는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제기구는 대부분 몇 년에 한 번씩 근무 국가가 바뀌고, 기구나 직책에 따라 다르지만 이른바 '험지'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기구에서 일한다는 막연한 환상만을 품고 도전한다면 실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것이다.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국제기구가 아니어도 국제NGO나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이 일이 자신의 적성에 잘 맞는지 테스트해보고, 실제 현장을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최성희 매니저는 영어 능력에 대해서는 "원어민처럼 잘하면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어 실력을 넘어서는 소통 능력"임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팁을 알려주었다.

"국제기구에서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주요 결정 사항이나 사업 진행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쓰기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이를 염두에 두고 영어 실력을 쌓아가길 바라요."

내 꿈의 조력자, 코이카

최성희 매니저에게 코이카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대상이다. 코이카가 라이베리아사무소의 UNV 자리를 마련했을 때 이를 통해 WFP에 처음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기구의 경우 그 기관에서 인턴십이나 단기 채용 경험이 있는 사람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처음 발을 들이는 게 중요했다.

"이번 르완다의 경우 코이카가 지원한 회복력 증대사업을 담당하는 매니저로 가는 것인데, 역시 코이카가 가교가 되었습니다. 코이카의 영향력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실제로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한국인으로서 갖는 책임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성희 매니저의 꿈은 명확하다. 우선은 훌륭한 국제기구 직원이 되고 싶은 것. 앞으로도 다양한 직책으로 여러 다른 국가를 다니며 일하겠지만,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본인과 기관 그리고 수혜자들에게 자랑스러운 직원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최성희 매니저는 지금까지 코이카의 한국인 진출 지원 노력을 아주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등 선진국은 JPO(초급전문가)나 UNV 외에도 각 분야의 전문가 파견이나 특정사업 담당자를 자국 출신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유엔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로 여겨지고 있어요. 단, 정말 능력이 있고 유엔 각 기구와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과 적성을 갖춘 인력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격을 갖추도록 도움을 주는 다른 제도와 인력 풀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국제기구에서 필요로 하는 뛰어난 자질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이 많은데, ODA(공적개발원조)나 국제협력, 국제기구가 아직 많은 이에게 생소합니다. 이러한 인력이 ODA나 국제협력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코이카가 노력해준다면 좋겠어요. 자국 인재 선발 경로를 다양화하고 유연화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실제 경험을 통해 보건대, 다른 나라의 경우 외교부나 국제 협력기관은 물론 대사관과 농림부, 보건부 등 관계 부서의 지원으로 전문가와 주니어 스태프가 단기, 장기 채용되는 것도 보았어요. 코이카도 이런 측면에서 국내 관계 부서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길을 넓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개발 분야에서 일하며 느낀 것 중 하나는, 세상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내가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이라는 큰 모자이크 그림에서 나에게 주어진 한 조각을 완성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빈곤과 기아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특히 젊은이들이 이 분야의 비전을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WFP 르완다사무소 지원 후 선발 과정 내내 '최적의 인물', '최고의 후보자'라는 평가를 받은 그. 그가 세계 무대에서 과연 어떤 역량을 펼칠지 코이카와 함께 거는 기대가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 인터뷰 진행 전 발열 체크 및 손 소독을 실시했으며, 사진 촬영을 제외한 인터뷰 전 과정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우유 수염을,
어른에게는 넉넉한 저녁 식사를

밀크포라오(Milk for Lao)
이재원 대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라오스라는 낯선 땅으로 떠나 코이카 NGO 인턴 활동으로 값진 경험을 쌓은 뒤, 개발도상국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인 밀크포라오 이재원 대표. 그를 만나 창업 성공기를 들었다.

글 이현수 **사진** 최인호

Q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밀크포라오 대표 이재원입니다. 밀크포라오는 2015년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에서 연구 겸 대학생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모임으로 시작해 지금의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라오스 아이들에게 우유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한 만큼 이름을 밀크포라오(Milk for Lao)로 정했습니다.

Q 밀크포라오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주요 사업은 축산입니다. 라오스인의 식단은 탄수화물 위주이고 우유 소비량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낮아 영양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라오스 아동에게 우유를 보급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영양 개선은 물론 현지에 축산을 보급함으로써 라오스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 외에도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 개발을 위해 야자수 낙엽 친환경 용기사업과 양계 농장사업도 병행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본 인터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진행했습니다.

Q 코이카 영프로페셔널(YP)*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코이카 교육원에서 1년 넘게 주말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코이카 영프로페셔널(이하 YP) 지원의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사명감으로 개발협력에 투신한 분들의 열정 가득한 세미나를 매주 들으며 꿈을 키웠습니다. 이후 2014년 1년간 라오스 사이솜분주에서 상수도 보급사업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원래는 평범하게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YP 활동 중 이 분야에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당시 사이솜분주의 상수도 상황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우물 주변에서 가축을 키우는 바람에 축산 분뇨가 섞인 물을 마시고 수인성 질병에 걸리는 주민이 많았습니다.

10개월간의 상수도 보급 공사가 끝난 직후, 한 60대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무릎이 안 좋아 물 길어오는 걸 힘들어하셨는데, 집에서 편하게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큰 변화였죠. 저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셨는데 대한민국이 받아야 할 인사를 대신 받은 것이라 감격스럽고 뿌듯했습니다.

Q 창업 당시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갔으며, 현재는 어떤 단계인지 궁금합니다.

창업 과정에서 다른 곳과 구별되는 저만의 무기가 필요하다는 데 주목했고, 조사를 거듭하며 라오스의 축산산업에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라오스는 여전히 전문 지식 없이 소를 방목해 사육하고, 유통 가격도 눈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소의 육질이 질겨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발전된 축산 노하우를 라오스 농가에 공유해 소의 품질을 개선한다면 큰 변화로 이어지리라 확신했습니다.

이후 노력이 결실을 맺어 밀크포라오는 2016년 코이카 민간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단체로 선정되어 라오스 농림부 등록 NGO가 되었고, 앞으로 굿 파머스와 함께 코이카 민관협력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Q 코이카 YP 지원을 희망하는 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YP로 지원하는 분께 조언하고 싶은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 친구를 사귀고 함께 울고 기뻐하면 그 과정에서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게 있어 YP 1년은 즐겁고 보람차면서도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YP 때의 경험이 이어져 개발협력으로, 다시 밀크포라오 설립으로 이어졌으니까요..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길 바랍니다.

---

* 영프로페셔널(YP): 국제개발협력사업(ODA)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 NGO 단체 등이 우수 청년 인재를 대상으로 청년 인턴으로서 ODA 사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ODA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프로그램.

** 코이카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국내 시민사회단체, 대학 및 교육기관, 사회적 연대 경제 조직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국제개발 신규 사업 참여와 사업 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지역 조사에서 사업 형성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개발협력 육성 프로그램.









인도네시아의 철도 역량을
꽃피우기 위한 씨앗이 콕콕

2019 철도 인프라 전문가 양성 연수생, 인도네시아 철도 폴리테크닉

와휴 탐토모 아디 (Wahyu Tamtomo Adi) 씨

인도네시아는 교통체증이 심각하기로 악명 높다. 내비게이션 전문 업체 '톰톰(TomTom)'에서 발표한 2019년 교통지수에 따르면 자카르타는 전 세계 도시 중 도로 혼잡도 10위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 인프라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의 고속철도 차량과 운영 능력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이에 코이카는 글로벌 연수사업(CIAT)을 통해 2019년 '철도 인프라 전문가 양성' 연수를 진행했다.

※ 해당 연수사업은 2019년도에 추진되었으며, 본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글 남지연 **사진** 와휴 탐토모 아디 제공

Q 안녕하세요. 소개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교통부 산하 교통인적자원 개발기관 '철도 폴리테크닉'에서 근무하고 있는 와휴 탐토모 아디(Wahyu Tamtomo Adi)입니다. 인도네시아 철도 폴리테크닉은 전국 철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Q CIAT '2019 철도 인프라 전문가 양성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연수 과정은 어땠는지요?

연수 기간 동안 워크숍과 액션 플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한국이 지닌 지식과 경험, 기술 등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철도의 역사와 발전사를 시작으로 철도 계획 및 건축관리, 철도 안전관리 및 운영, 시설관리 및 자산 개발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힘겨운 상황을 경험한 이후 어려움을 딛고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연수를 받으며 한국은 초고속열차에 최신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철도기술 수입을 통한 기술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앞으로 철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익히고 노력해야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연수 과정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을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연수 프로그램 중 '액션 플랜 워크숍'이 제게는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액션 플랜을 준비하면서 인도네시아 철도 분야의 문제점과 도전 과제를 파악할 수 있었고, 철도 분야의 전문적이고 유능한 인적자원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직접 수립한 액션 플랜을 통해 초고속열차와 새로운 열차 운영을 준비할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수를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철도 기술 발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동료들과 공유하며 논의해 역량 강화 연수 커리큘럼을 구성했고, 인도네시아 철도 담당 부처인 교통부와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코레일과의 협업을 통한 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했습니다.

Q 말씀대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의 MOU를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제가 참여한 코이카 연수는 코레일이 연수기관으로 진행한 연수사업이었습니다. 한국의 사례처럼 인도네시아에서도 안정적으로 철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영, 안전, 정책관리, 전력 시스템 등에 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저는 코레일과의 협력을 위해 코레일 해외사업 부처 담당자와 인도네시아에 필요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고, 양측의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코레일과 업무협약(MOU)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당장 실행하기 어렵지만,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코레일과 인도네시아 철도 폴리테크닉 직원들은 양국을 오가며 철도 근로 문화 학습을 위한 교환 직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도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합니다.

막연하기만 하던 철도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실행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시작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데 코이카의 '철도 인프라 전문가 양성 연수'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양국은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특히 각 나라의 철도 시스템과 운영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이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대표 철도기관인 코레일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이 자국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데 적극 임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업이 지속되어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BOOK & STORY

Another W

당신의 이야기로 세상과 소통하세요

코이카 코디네이터 출신 ‘어나더더블유’ 정용희 대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독립출판사 ‘어나더더블유’가 최근 코이카 코디네이터로 일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멋진 줄 알았다: Reality 39.5>를 펴냈다. 르완다에서 출발해 사당동에 이르기까지 남과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는 그를 만나보자.

글 이경희 사진 원상희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서울 사당동 골목에 위치한 ‘어나더더블유’는 오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하는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곳에 자리 잡은 지 1년 됐습니다. 저는 스토리 컬렉터로서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나더더블유에서 더블유(W)는 write의 약자로 ‘또 다른 글쓰기’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책은 유명한 사람이나 전문 작가가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글을 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작명했습니다.”

어나더더블유의 책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작가 혼자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작가가 모여 옴니버스 형태로 책 한 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형태로 총 여덟 권의 책을 펴냈고, 현재 두 권의 책을 작업 중이다. 작고 가볍지만 많은 이야기가 담긴 어나더더블유의 책이 다시 눈에 들어온다. 여러 사람의 인생이 담긴 책, 내가 모르던 다양한 세상을 이 작은 한 권을 통해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더없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코이카 코디네이터의 삶이 궁금한가요?

정용희 대표는 최근 코이카 코디네이터로 일했거나 지금도 일하고 있는 4인의 이야기를 담은 책 <멋진 줄 알았다: Reality 39.5>를 발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 대표에게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자신에게도 각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저도 코이카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단원으로, 코디네이터로 총 두 번을 코이카라는 이름을 달고 아프리카 르완다에 다녀왔거든요.”

처음에는 군 대체 복무로 르완다에 30개월간 머물렀다. 다녀와서는 코이카 코디네이터로 또다시 르완다에 갔다. 삶의 가치와 지향점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4년 넘게 르완다에서 지낸 것은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다.

“르완다는 굉장히 평화롭고 사람들도 좋아서 마치 고향처럼 느껴지는 곳이에요. 물론 생활 면에서는 한국보다 불편합니다만 그곳에 다녀온 뒤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멋진 줄 알았다: Reality 39.5>의 저자 4인은 모두 정 대표가 코이카 코디네이터 시절에 만나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다. 이 책에는 4인의 코디네이터 시절 경험담과 그들의 생각, 애환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책에 세상을 담고 책을 통해 나누다

책은 수많은 역할을 한다. 누구에게는 위로가, 누구에게는 기쁨이, 누구에게는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서가 되기도 한다.

“<멋진 줄 알았다: Reality 39.5>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네 분 중 한 분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외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해당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을 위한 이야기를 썼고, 다른 세 분은 코이카 활동을 하면서 어떤 상황을 겪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서술했어요. 독자들이 ‘개발협력’과 관련한 직업을 미리 만나볼 수 있고, 관련 일을 앞두고 마음을 다잡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막연한 환상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으로 이 직업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말이 나온 김에 코이카 경력자인 정용희 대표에게 코이카에서 일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했다.

“해외 지원사업을 위해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건 나를 제외한 모든 우주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 문화, 분위기, 음식 등 모든 게 바뀌어요.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반에 정말 많이 부딪쳐요. 내가 갖고 있던 생활 습관, 가치관을 조금 내려놓고 그들 문화에 먼저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깨닫고 다듬고 도전하는 길 위에서 정용희 대표는 꿈을 갖게 되었다. 보다 다양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이 그것이다. 한국, 미국, 르완다, 페루 등 각국 30대가 쓰는 각자의 삶을 한 권의 책에서 만날 수 있다면 ‘사람 간 소통’을 향한 그의 소망은 씨앗을 품은 한 송이 꽃이 되지 않을까.

“훗날에는 르완다 사람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물론 팔리는 만큼 인세도 드리면서요.”

정 대표가 아이처럼 미소 짓는다. 마치 그날이 내일인 듯 환하게.

※ 인터뷰 진행 전 발열 체크 및 손 소독을 실시했으며, 사진 촬영을 제외한 인터뷰 전 과정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했습니다.

<멋진 줄 알았다: Reality 39.5> 구매처

오프라인 독립 책방 ‘어나더더블유’(서울 동작구 사당로30길 42)

온라인 어나더더블유 스마트 스토어 smartstore.naver.com/anotherw



코이카 구내식당을 책임집니다

코이카 운영지원실
박영주 영양사

즐거운 점심시간, 코이카 직원들은 언제나 행복한 마음으로 구내식당을 찾는다. 엄마가 해준 집밥처럼 푸짐하고 맛있는 식사가 직원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코이카 구내식당의 영양 만점 식단을 책임지고 있는 박영주 영양사를 만났다.

글 남지연 사진 박원민

Q 영양사 님,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운영지원실에서 근무하며 코이카 구내식당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주 영양사입니다. 2001년 입사해 벌써 19년 차가 되었네요. 식단을 짜고 표준 레시피를 관리하는 등의 식단관리 업무와 식재료를 구매하고 검수하는 등의 식재료 구매관리 업무 그리고 조리 작업 계획, 조리 지도, 검식 등의 조리 작업관리가 제일입니다. 더불어 배식관리, 위생관리, 영양관리, 급식 예산 계획 및 집행 등 전반적인 구내식당관리 업무를 담당하지요. 코이카는 기관 특성상 외국인 연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센터 식당 및 봉사단원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인재교육원 식당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구내식당의 위탁급식업체 선정관리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Q 코이카 구내식당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코이카 구내식당은 코이카 직원과 자회사 직원 400여 명의 점심 식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등 총 7명의 조리실 직원이 오랜 시간 같이 근무하면서 척하면 척! 하고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착착 손발을 맞춰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질 좋은 국내산 식재료를 엄선해 조리하는 만큼 직원들은 물론 종종 찾아오시는 민원 방문객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습니다.

Q 구내식당 메뉴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선 영양 권장량에 맞춘 조화로운 식단을 짜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지만, 이 외에도 직원들의 니즈와 건강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맛과 식감, 색감의 조화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요즘 직원들은 가정식보다는 외식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단순히 '밥 한 끼'보다는 맛과 건강을 챙기는 식사에 대한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이카 구내식당은 '집밥'을 콘셉트로 식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로 정성을 들여 마음만은 정말 엄마가 해주는 밥처럼 직원들에게 매끼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식사 후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라며 전하는 감사 인사에
조리실 가족은 기운이 솟아납니다."

Q 인기가 가장 많은 메뉴는 무엇인가요?

코이카 구내식당의 최고 인기 메뉴는 '수제 돈가스'입니다. 돈가스는 하루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국내산 등심을 일일이 망치로 두드려 펴는 연육 작업을 한 뒤 기본 양념을 해 숙성시키고 배식 당일 밀가루, 달걀, 빵가루를 입혀 바삭하게 바로 튀겨냅니다. 여기에 곁들여 먹을 특제 수제 소스까지 함께 제공하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직원들도 정말 좋아해주셔서 항상 뿌듯한 마음이 큽니다.

2020년 6월 5일에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스크램블드 두부비빔밥, 도토리묵사발, 버섯 렌틸 샐러드 등으로 구성된 '저탄소 식단'을 제공해 환경의 날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직원들도 아주 좋아하셨고요. 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리사 님 덕분에 태국 음식을 주제로 스페셜 메뉴를 제공한 적도 있는데, 그때 역시 반응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외에도 장어구이, 바비큐 폭립, 한방갈비탕, 연어 스테이크, LA갈비구이 등 특별한 날에는 특식을 제공하기도 하면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나요?

직원들이 식사 후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라며 전하는 감사 인사에 조리실 가족은 기운이 솟아납니다. 또 잔반이 거의 없이 다 드시는 분들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조리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맛있고 퀄리티 높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과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움츠러든 시기이지만 식사 거르지 마시고 건강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이카 직원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 인터뷰 진행 전 발열 체크 및 손 소독을 실시했으며, 사진 촬영을 제외한 인터뷰 전 과정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협력, 지원,
구호의 모든 것을 담다

다자협력인도지원실

다자협력인도지원실은 국제기구협력사업,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사업,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등 세 업무를 커다란 축으로 하는 부서다. 얼핏 들어도 그 규모나 영역이 방대하게 느껴지는 업무인데 세부적으로 파고들어 그 일의 다양함을 이야기하자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판이다. 2020년 연초부터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추가된 다자협력인도지원실은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냈다. 서로가 힘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해내기 힘들었을 업무를 수행하면서 코이카는 물론 대한민국의 이름까지 드높인 이들의 시간이 궁금하다.

글 이경희 **사진** 이성원

Q 보통 부서명을 들으면 어떤 곳인지 짐작되는데 다자협력인도지원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짐작하기 어려워요. 부서 소개를 부탁합니다.

성민경 과장 다자협력인도지원실은 크게 국제기구협력사업,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사업,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등 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다른 실은 보통 한 업무를 여러 명이 하는 구조인데 저희는 실 안에서 세 파트로 나눠 일하다 보니 규모는 코이카 내에서 톱 3에 들 만큼 크지만 막상 업무를 하다 보면 그 크기가 실감 나지는 않아요.

Q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성민경 과장 국제기구협력사업의 제일 큰 특징은 하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양자 사업이 아닌 다자 사업을 전담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WHO, UNHCR, WFP, UNDP, UNICEF 등 다양한 국제기구예요. 난민 재정착 지원 및 자연재해 예방 분야의 경우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 시 효과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국제기구에서 다국가적, 중립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어 매년 이 두 가지 중점 분야를 공모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국제기구를 선정해 개발도상국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면좌 과장 긴급구호는 코이카 예산이 아니라 외교부 보조금 예산으로 진행되는 업무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 의사 결정은 외교부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만약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이게 현금 지원, 현물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 KDRT(Korea Disaster Relief Team)를 파견하는 형태가 되기도 해요. 피해 규모와 피해 국가의 필요, 지원 방식의 효용성 등을 따져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고 저희가 실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지은 과장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은 국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긴급한 재난 또는 만성화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사회를 통해 정부나 UN 등 국제기구의 관심이나 접근이 제한적이지만 지원이 절실한 곳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2020년에는 총 12개 단체의 긴급구호, 난민 지원, 분쟁하 성폭력, 재난 위험 경감 분야 인도적 지원사업을 실행·관리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김면좌 과장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진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가장 주된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선진국 관계없이 정부 차원에서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진단 키트나 검체 채취 키트, 핵산 추출 키트 등 의료 관련 기기를 지원하거나 현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인도적 지원을 위한 마스크 해외 반출이 가능해지면서 최근에는 마스크 지원도 시작했고요.





성지은 과장 앞서 말씀드린 12개 정규 사업 이외에 지난해 6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대응 지원을 위해 약 22억 원 규모의 긴급구호사업 10건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 중입니다. 방글라데시, 필리핀, 네팔, 에티오피아, 케냐, 이집트, 페루 등 7개 개발도상국 내에 가장 소외된 최취약계층인 난민, 이주민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민경 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도적 지원 이슈 아래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은 난민 이슈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난민 지원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에 있어요. 덧붙여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업무 시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성민경 과장 저희는 업무 시 이해관계자가 매우 다양해요.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 본부, 한국 사무소, 현지 사무소 및 코이카 해외사무소 등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을 하며 사업의 추진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국제기구와 시차도 있다 보니 바로바로 연락하기 어려워 저희 직원들이 요새는 시차 조정을 통해 컨퍼런스콜이나 온라인 화상회의로 소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면좌 과장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코이카 예산이 많이 하향 조정됐지만 유일하게 저희 파트만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예산 규모가 올해만 총 8,000만 달러예요. 올해 예산이 870억 원 정도인데 추가된 예산이 830억 원이 넘으니까요. 그 말인즉 인원은 그대로인데 할 일은 배가했다는 말이죠. 시간적 압박이 많은데 구호를 받는 국가의 상황을 외교부가 조사·조율하고 저희한테 결정된 사항이 내려오기 때문에 '긴급구호'지만 시간이 꽤 걸려요. 계약을 체결하고 불안정한 항공편으로 운송하기까지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걸리고요. 구호의 특성상 신속성이 가장 생명인데 실무자들이 아무리 숨 가쁘게 뛰어도 기다리시는 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요. 잠시 다른 일을 하면 반나절 만에 메일이 60통쯤 와 있고, 담당자들의 휴대폰과 사무실 전화가 동시에 울리는 지경이죠. 해야 하는 업무에 할당해야 할 시간은 늘 부족해요.

성지은 과장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은 연간 운영 규모도 작고 우리 협력단 내에서도 인지도가 낮은 사업이지만, 해외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국내 시민단체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거의 유일한 공공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시민사회와 정부 간 파트너십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규모 면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앞으로 협력단 내외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받아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Q 다자협력인도지원실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해주세요.

성민경 과장·김면좌 과장·성지은 과장

저희 실은 현재 전략과 전사적인 국제기구협력사업의 총괄 역할도 같이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3개의 사업도 함께 하는 구조예요. 그간 각 사업에 대해 공통 지침을 안내하거나 성과관리를 추진하는 총괄 역할이 부재했거든요. 그 때문에 저희 실이 작년 연말부터 국제기구협력사업 관련 총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올해부터 세부적으로 지침이나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사적으로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저희 실에도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총괄 역할과 더불어 저희 실에서는 국제기구협력사업과 연관해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 한국 기관의 국제 전문성 강화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기구협력사업과 관련해 한국인 의무 채용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사업당 최소 1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코이카 사업을 통해 국제기구에 직접 채용되어 유의미한 경력을 쌓은 후 다양한 국제기구에 진출할 기회가 많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한국인 의무 채용 제도는 2022년 신규 사업부터 코이카 전사 다자협력사업에 적용될 예정이에요.

※ 인터뷰 진행 전 발열 체크 및 손 소독을 실시했으며, 사진 촬영을 제외한 인터뷰 전 과정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했습니다.



KOICA SAFETY FIRST

전 세계에 포진한
코이카 파견인력의 안전을 책임지다

글로벌안전센터

매순간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이 세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테러, 정정 불안으로 인한 시위, 지진, 태풍, 에볼라, 말라리아, 강도 사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만 코이카는 이런 위험에 굴하지 않고 각국에서 인도적 지원을 아낌없이 펼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코이카의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글로벌안전센터가 있다.

글 강나은 **사진** 원상희



후속 조치가 아닌 예방 조치로 안전 패러다임을 바꾸다

어떤 분야에서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가치는 '안전'이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특별히 눈에 띄는 분야가 아니기에 소홀히 여기기 쉽다. 그러나 2018년 코이카는 운영지원실에서 수행하던 안전 업무를 분리 독립시켜 이사장 직속으로 글로벌안전센터를 신설했다. 코이카의 업무 특성상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봉사단 등의 안전을 지켜주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판단하고, 파견 직원과 봉사단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글로벌안전센터는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에는 후속 조치에 중점을 두었던 안전관리를,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안전 위험 요소는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테러 및 정정 불안, 질병, 자연재해, 치안사고, 교통사고 등을 포함한 기타 사고다. 이 다섯 가지 위험 요소 중 조금이나마 예측 가능한 요소는 자연재해 중 태풍, 질병, 테러 및 정정 불안 등이 있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는 자연재해 중 지진, 치안사고와 교통사고 등이 포함된다.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안전 정보를 획득하고, 경보를 파견인력에게 신속히 알리는 것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반면 예측이 불가능한 요소에 대해서는 꾸준한 교육을 통해 파견인력이 위험 상황에서 신속한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안전센터와 해외사무소의 안전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를 수집해 경보를 전파하고 안전 사항에 대해 교육하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다

이러한 목표를 세운 글로벌안전센터는 유관 기관과 글로벌 정보기관으로부터 안전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훈련에 있어서는 파견 전 봉사단과 코디네이터 교육에도 나서고, 연 1회 진행하던 현지 교육을 연 2회로 늘렸다.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 교재도 제작 중이다.

한편, 해외사무소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52개국에 있는 사무소의 상황을 알기 위해 클라우드를 이용해 자료를 공유하고, SNS를 통해 실시간 상황 공유 및 수시 보고 체계를 갖췄다.

"간단하지만 유용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희에게는 해외사무소 전 직원이 파견인력의 안전을 위한 정보원이죠."

김상철 글로벌안전센터장의 말에서 자부심이 드러났다. 해외사무소에서는 각각 다음 달과 다음 주의 위험 요소 예측 내용을 공유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A국가에 다음 달 선거로 인한 폭동이나 진압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본부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이다. 실시간 상황은 SNS를 이용해 신속하게 파악하며, 실제로 작년 스리랑카 테러 당시에도 현지 사무소에서 언론 보도보다 빠르게 상황을 공유했다. 그 결과 본부에서는 현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조치해 69명의 파견인력을 한국으로 긴급 대피시킬 수 있었다.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일 안전 점검도 시작했다. 주중에는 안전 점검이 수월하지만, 주말에는 안전 점검이 안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SNS로 안전 상황을 체크하고, 안전 상황이 체크되지 않는 파견인력에 대해 확인에 나선다. 또 파견인력 위치 확인 시스템을 갖춰 위급 상황에서는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되고, 직원이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시키면 파견인력 개인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해외사무소의 안전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각 사무소에 한국인 안전담당관도 파견할 예정이다.

"본부의 안전 체계를 강화했듯이 해외사무소 역시 전문 인력을 보강해 본부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글로벌안전센터는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하드웨어 역시 갖춰야 했다. 그래서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작년 연말에는 종합안전상황실을 개설했다. 상황실은 관제센터와 회의실 역할을 겸한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해외사무소와의 화상회의가 이루어지고, 연수센터에 설치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다. 게다가 이 공간은 단순히 글로벌안전센터만의 공간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경영진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단기간에 안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코이카를 안전하게 지켜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글로벌안전센터의 발 빠른 대처가 빛났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1월부터 글로벌안전센터는 파견 국가의 상황을 파악하고 위험성에 대해 판단 및 조치해 신속하게 파견인력을 귀국 조치하도록 했다. 일본, 미국 등 공여 기관 상황을 파악하고 해외사무소에서 공유한 정보를 종합해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결과 2020년 3월 16일에 봉사단 철수가 시작되었고, 전 봉사단원은 단 한 명의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국했다. 귀국 조치 이후에도 각국 사무소에 남아 있는 인원이 있기에 글로벌안전센터에서는 파견국의 코로나19 현황 분석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일일 단위로 각국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 위험성을 판단,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

다행히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글로벌안전센터 구축이 마무리되었고, 안전관리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었기에 코로나19 위험에서도 빠른 상황 판단 및 조치가 가능했다.

"파견국 시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안전센터에서는 24시간 내내 공백 없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측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저희에게 갑자기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죠.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Mini Interview



김상철 글로벌안전센터장

"해외사무소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은 국내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파견인력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고 계십니다. 일시 귀국 조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해외사무소에 계신 분들의 노력과 수고 덕분에 모든 인원이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지에 잔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고 있지만, 현지에서 느끼는 고충은 이보다 훨씬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안전센터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있는 조직인 만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중 글로벌안전센터 복도 벽의 문구가 가슴에 와닿았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안전보다 우선한 업무는 없습니다."

※ 인터뷰 진행 전 발열 체크 및 손 소독을 실시했으며, 사진 촬영을 제외한 인터뷰 전 과정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했습니다.

각국의 전래동화를 통해 만나는
코이카 해외봉사단원과 이주여성의 희망 메시지

‘엄마나라 동화’

코로나19로 해외봉사에 나설 수 없는 요즘, 코이카 해외봉사단원들은 해외에서 펼쳐온 열정을 국내에서 쏟을 방법을 고민하며 실행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 그중 하나가 큰 결실을 보았다. 바로 각국의 문화를 만날 수 있는 ‘동화책 제작’이다. 누구보다도 각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난 이주여성 작가들과 함께 작업하며 ‘완성도’를 높이고 뜻깊은 ‘의미’를 함께 되새길 수 있었던 ‘엄마나라 동화’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강나은 **사진** 코이카













다양한 문화를 생생하게 담은 전래동화가 탄생하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일시 귀국한 코이카 봉사단이 국내 취약계층과 다문화 청소년을 위해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었다. 각국의 문화가 담긴 전래동화, ‘엄마나라 동화’다. 이 프로젝트는 14명의 이주여성과 43명의 귀국 봉사단원 및 수어 통역가, 다문화 전문 기업 ‘아시안 허브’, 해외봉사단 출신의 세계시민교육 전문 강사 등이 참여해 약 4개월에 걸쳐 진행했다.

이렇게 완성된 ‘엄마나라 동화’는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프랑스, 에티오피아, 이란 등 총 11개 언어권 15편의 전래동화로 제작되었으며 한국어, 영어, 현지어로도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수어 통역을 포함한 영상으로도 제작해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동화 속 파랑새가 되어 희망을 전달하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모두 다르지만 마음만은 모두 하나였다. 바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다. 정지은 코이카 해외봉사단원도 마찬가지였다.

“제가 세네갈에 있을 때, 국립예술대학교에 파견되어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갑자기 모든 것을 중단하고 돌아왔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일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화 소재 선정, 원고 작성, 영어와 현지어 번역, 삽화 제작, 동화 음성 녹음 등 전 과정에 이주여성과 해외봉사단원이 참여했다.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 모든 과정이 부담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전래동화로 쉽게 접할 수 없던 콘텐츠를 통해 각국을 소개한다는 자부심 역시 컸다.

로와이드 우파 인도네시아 이주여성 작가는 인도네시아 문화를 알린다는 데 보람을 느끼며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한국 아이들이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인도네시아라는 섬나라가 있고, 이 나라에서는 지역마다 다른 옷을 입고 다른 가옥에 산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리 이란 이주여성 작가 역시 이 동화가 한국과 페르시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적극적으로 동화 제작에 나섰다.

“페르시아 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해보면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공통점이 동화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 페르시아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페르시아어로 녹음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코이카 단원들 역시 이번 프로젝트에 임하는 각오가 남달랐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김형자 해외봉사단원은 동화를 읽을 아이들의 입장에서 엄마나라 동화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 동화책 제작에 참여하면서 같은 동물도 나라마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았어요. 국내외 아동이 엄마나라 동화와 세계시민교육 콘텐츠를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두가 협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하다. 때마침 코이카 단원과 이주여성이 힘을 합쳐 정성스럽게 만든 ‘엄마나라 동화’가 동화 속 파랑새의 모습으로 날아 들어왔다. 이제 동화책을 펼쳐 희망의 메시지를 확인할 때다.

개발협력에 '진심' 인 전문가가 추천하는 도서 4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 간 개발 및 빈부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의미만 들어서는 그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다고요? <Together KOICA>가 추천하는 국제개발협력 추천 도서를 만나보세요. 국제개발협력을 색다르게 바라보는 계기가 될 거예요.

글 신가영

1



천진난만 국제개발 시골 공무원, 지구촌 여전사가 되다

손수진 | 컨텐츠조우 | 2020년 10월

어느 날 남부럽지 않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9년 4개월 동안의 공무원 생활을 접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납니다. 해외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NGO 활동가로서 12년 4개월 동안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케냐, 차드 등지에서 살아온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책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가 들려주는 진짜 NGO 활동가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저는 그를 2013년 케냐에서 만났는데, 이미 10년 넘게 걸어온 국제개발 현장임에도 현장에서 그의 얼굴엔 늘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만약 그를 단 한 번이라도 만났다면 왜 그가 책 제목을 '천진난만 국제개발'이라고 지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만난 누구보다 자신의 길을 소신 있게 걸어온 그의 책을 추천합니다.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

스미소니언 연구소 | 에딧더월드 | 2013년 7월

국제개발협력 보고서에 주로 선진국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인간개발지수, 국내총생산 등이 언급됩니다. 당시 '국제개발협력'을 공부하면서 저는 '과연 이런 것이 선진국을 나타내는 올바른 지표일까?' 혹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 지향해야 하는 지표일까?'라는 물음으로 머리가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즈음 이 책은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저자 스미소니언 연구소는 세계 최대 연구 및 박물관 연합체입니다. 이 책은 적정기술 총서로, 생태계 환경을 파괴하는 대량생산 기술에서 벗어나 재생할 수 없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대중에 의한 생산 기술을 제안합니다. 국제개발기업 창업자 폴 폴락 같은 국제개발협력 종사자, '인간을 위한 디자인'을 꿈꾸는 디자이너, 과학기술에 따뜻함을 담으려는 공학기술자 그리고 개발협력 현장의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등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개발협력을 좀 더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인간 중심 경제를 위하여

E.F. 슈마허 | 문예출판사 | 2002년 3월

21세기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재사회화'라는 말이 우스울 정도로 IT를 모르면 조만간 사회에서 도태될 것 같습니다. 개발협력 분야도 이에 발맞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수요 및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실천적 경제학자이자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저자 슈마허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개발도상국의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이는 결국 개발도상국 내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슈마허는 중간기술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중간기술이란 생태계 환경을 배려한 지역의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생존 수단의 부재로 빈곤에 시달린 이들을 구제할 고용 관계까지 배려한 기술입니다. 이 방법이 대량생산 대신 대중에 의한 생산을 이루어줄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중간기술이 무조건 전통 기술이라기보다는 선진 기술을 발전시킨, 즉 적정기술 또는 대체기술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개발협력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4

블루 스웨터 부유한 이와 가난한 이 사이에 다리 놓기

재클린 노보그라츠 | 이른아침 | 2009년 3월

저자 재클린 노보그라츠는 자선과 기부, 비즈니스를 하나로 묶은 비영리단체 '어큐먼펀드' 설립자입니다. 버지니아대학교 졸업 후 체이스맨해튼 은행에서 국제은행가로 활동하다 돌연 스물다섯 나이에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아프리카로 떠나는데, 이 책은 그가 실제 경험한 좌충우돌 모험기를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젊은 날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최소의 소액대출 은행(빈민 은행)인 '두테림베레'를 설립하는 데 참여한 이야기, 20명의 미혼모를 모아 지속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블루 베이커리'를 세우고 이들에게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노하우를 전수한 이야기, 또 그가 2001년 자선사업과 사기업의 중간 형태인 세계 최초 비영리 벤처 캐피탈 '어큐먼펀드'를 설립한 이야기,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철학에 기반을 둔 투자와 경영기법 및 노하우를 전수한 이야기 등을 이 책을 통해 가감 없이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변화를 꿈꾸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받아들여라." 지난 2008년 <포춘>이 선정한 '아름다운 얼굴 8인' 가운데 혁신가 부문에 선정된 그가 한 말입니다. 그의 생생한 좌충우돌 모험기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신가영

· 한국수출입은행(EDCF), 베트남 하노이 해외사무소(ODA 청년인턴, 2011)
· 굿네이버스(GNI), 국제개발팀, 케냐 아프리카권역 본부(간사, 2012~2104)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에티오피아 해외사무소(봉사단 코디네이터, 2014~2016)
· 하트하트재단(HHF), 방글라데시 해외사무소(프로젝트 매니저, 2017~2018)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글로벌개발협력본부, ODA사업부(주임, 2018~현재)
· <멋진 줄 알았다: Reality 39.5> 공동저자(2020)

Girls Can Do Anything!

세상을 바꾼 여성 인권 영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 폭력. 오늘도 많은 이가 전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담은 여성 인권 영화를 소개합니다.

글 김영주

Women's R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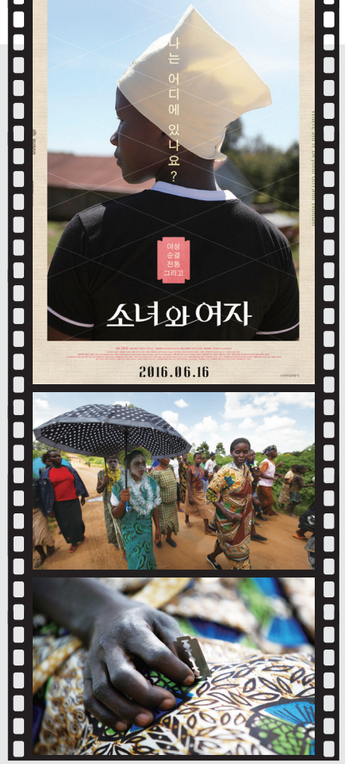
와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자라서 안 된다고요?

여성은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10세 소녀 '와즈다'는 이웃집 '압둘라'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이 항상 부러웠습니다. 마침 단골 가게에 마음에 쏙 드는 초록색 자전거가 새로 들어왔고 와즈다는 엄마에게 사달라고 조르지만 "여자는 자전거를 타면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결국 스스로 돈을 모아 자전거를 사기로 결심한 와즈다! 그러나 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때마침 학교에서는 큰 상금이 걸린 코란 경전 퀴즈 대회가 열리는데…. 학교의 문제 학생이었던 와즈다는 과연 대회에서 우승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한 소녀의 유쾌한 시선으로 바라본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차별적 사회 모습. 영화 <와즈다>는 여성에게 영화를 보는 것과 극장 출입이 금지된 나라에서 여성 감독이 만든 최초의 영화인데, 짐작할 수 있듯이 제작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모든 촬영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기를 원한 감독. 이슬람 율법상 여성과 남성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어 차 안에서 디렉팅을 하고, 이슬람 세력에게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치열했던 촬영 현장 속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요?



소녀와 여자

케냐

소녀와 여자, 그 사이 어딘가

아프리카에서는 여성 할례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케냐의 쿠리아에서는 해마다 우기가 되면 할례를 진행합니다. 할례를 피하기 위해 할례반대캠프로 도망쳐온 열일곱 살 '엘리자'와 할례를 받고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온 열네 살 '아나타'. 두 소녀의 모습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 행위의 실상을 빠짐없이 드러냅니다.

영화 <소녀와 여자>는 김효정 감독의 작품으로 실제 아프리카를 여행하다 접한 여성 할례 문화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성 할례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습으로, 여성 할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전통을 지키려는 자와 타파하려는 자를 모두 영화에 등장시켜 관객 스스로 이 문제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스 컨츄리

미국

"여기서 부끄럽지 않은 건 내 딸뿐입니다"

이혼 후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거리를 찾던 '조시'는 한 번도 생각지 않은 일에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옛 친구이자 몇 안 되는 여자 광부 중 한 명인 '글로리아'의 격려로 광산에 취직한 조시. 고된 일이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남성들의 태도였습니다. 조시는 부당한 태도에 항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 유일한 친구였던 글로리아, 가족과의 관계까지 안 좋아집니다. 망연자실해 있던 조시는 고향으로 돌아온 변호사 빌 화이트에게 성차별에 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하자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투쟁을 시작합니다.

영화 <노스 컨츄리>는 1984년 미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직장 내 성폭력 소송에서 승소한 '젠슨 대 에벨레스 광산(Jenson vs. Eveleth Mines)' 사건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편견에 대항하며 여성의 권위를 찾는 데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준 순간을 영화로 만나보세요.



Together KOICA를 인터넷으로 만나보세요



코이카 웹진 Together KOICA에는
코이카의 유익하고 즐거운 소식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메일진과 카카오진 구독을 신청하고 코이카의 소식을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받아 보세요.

<Together KOICA> 메일진 구독 신청하기



▲메일진 구독 신청 QR코드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메일진 구독 신청으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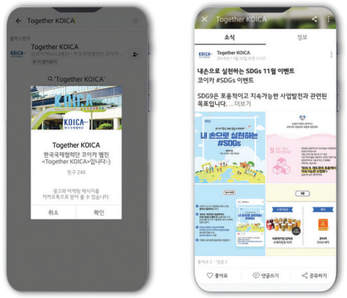
STEP 1 **코이카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한다.
www.koica.go.kr/koica_kr/index.do

STEP 2 **방법①** '알림·홍보' 메뉴 클릭 ⇢ 'KOICA 뉴스레터' 클릭 ⇢ 'Together KOICA' 클릭
방법② **KOICA 웹진 '자세히 보기'** 버튼 클릭

STEP 3 페이지 왼편에 보이는 '뉴스레터 신청 KOICA Newsletter'의 ⊕ 버튼을 눌러 **뉴스레터를 신청**한다.

STEP 4 코이카 메일진 **구독 완료!**
매달 코이카의 즐거운 소식을 메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Together KOICA' 카카오 채널 추가하고 카카오진 구독하기



STEP 1 카카오톡 상단의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코이카', 'KOICA 웹진', 'Together KOICA'를 검색**한다.

STEP 2 Together KOICA **카카오 채널을 추가**한다.

STEP 3 카카오진 **구독 완료!**
매달 코이카의 즐거운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KOICA는 1991년 설립 이래,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의 우호 협력 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경제 ·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통해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KOICA